'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활

정헌율 익산시장·김수흥 국회의원, 국가산단 지정 건의 서명서 국토부에 전달

익산시가 대한민국 식품산업 미래가 달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국가산단 지정에 사활을 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정헌율 시장과 김수흥 국회의원은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을 건의하는 국회의원 105명의 서명서를 국토교통부(이원재 1차관)에 전달했다.

이번 2단계 산단 지정 건의에 서명한 국회의원들은 100여명이 넘으며, 지역구를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미래산업에 산단 지정이 필요하다며 익산에 힘을 보탰다.

한류 열풍을 타고 K-푸드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급팽창함에 따라 농식품 수출시장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대한민국 경제를 대도약시킬 것이라는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를 정부로부터 신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기 위해 후보지 제안서를 지난 12월 제출했으며 현재 국토교통부는 평가 진행 중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미래 농식품산업을 이끌 국내 최초 식품전문 국가산단으로 232만㎡(70만평) 규모로 1단계 조성 이후 현재 127개사와 분양 계약을 체결, 78.8%의 분양률(국토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을 기록하며 조속한 2단계 산단 확장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됐다.

입주를 희망하는 상당수 기업들이 대규모 필지를 요구해도 제공 가능한 부지가 부족해 투자 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산업단지 확장 추진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 팬데믹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포함한 12개 기업지원 시설들의 원스톱 지원체계를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연매출 성장률은 7.1%로 국내 식품산업의 5배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국가식품클러스터 시너지 효과를 입증했다.

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로 현재 1단계 산단 인근에 미래형 식품문화복합산업단지 모델을 제안했다. 푸드테크 기반 미래 식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단순 식품제조 중심의 산업단지를 넘어 생산·지원·문화가 결합한 형태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국가산단 후보지 합동설명회와 현장점검, 관계기관 협의 및 국회 상임위원 설득 등 후보지 선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김수흥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식품산업을 선도하고 동북아 식품시장의 메카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가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되어야 한다"며 "여야 대선후보들도 공통공약을 약속했고, 여야의 초당적 지지를 받은 만큼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헌율 시장은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우리나라 100년 먹거리 산업을 견인하고 식품산업 혁신성장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2단계 지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린다"며 2단계 지정에 대한 의지를 적극 피력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후보지들을 최종 평가를 통해 2월경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인구정책, 적극적 소통·협업 답 찾는다

T/F 팀 재구성 · 부서별 협업 · 신규사업 발굴 추진

군산시는 13일 날로 심각해지는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마련을 위해 군산시 인구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한 실질적인 사업 발굴을 위해 기존 인구정책 T/F팀을 실무진 중심으로 대폭 개편했다.

결혼·임신·출산, 양육·보육, 교육 분야 정책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정주여건, 일자리, 노인복지 분야는 중·장기 과제로 분리하는 등 단계별 사업 추진으로 결혼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시 인구정책 T/F팀은 1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분야별 회의를 개최하여 우선 추진과제인 결혼·임신·출산, 양육·보육, 교육 분야 관련 핵심사업을 발굴할 예정으로 분야별 중점 논의내용으로 결혼·임신·출산은 두근두근 첫 만남(결혼에서 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 양육·보육은 맘(mom) 편한 육아(엄마가 맘 편한 육아 시스템 마련), 교육 분야로 공부의 신(사교육비 걱정 없는 수준 높은 교육 지원) 등이 있다.

시는 이 밖에도 인구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등 효과가 미비한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결혼·임신·출산, 양육·보육, 교육 분야의 실수요자로 볼 수 있는 맘카페 회원을 시민참여단으로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인구정책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이미 시행 중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홍보 미흡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산부인과와 문화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포하고 시 홈페이지와 SNS에 게시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근본적인 대책 없이 일회적이고 일시적인 정책으로는 인구감소에 대비할 수 없다"며 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략작물 직불제' 본격 시행

익산시, 밀 · 콩 · 가루쌀 등 재배 시 ha당 50~430만원 지원

익산시는 쌀 수급 안정 유도와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전략작물 직불제'를 시행한다.

시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청·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밥쌀용 벼 과잉생산 재배를 줄이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콩·가루 쌀 등 생산을 확대해 쌀 수급 안정과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더해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농업 법인에 추가로 지급하는 선택형직불금이다.

겨울철에 식량작물(밀·보리 등)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ha당 50만원, 여름철에 논콩·가루쌀은 100만원, 하계 조사료는 43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같은 필지에 겨울철 밀·조사료와 여름철 논콩·가루쌀을 이모작하면 인센티브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겨울철에 밀·조사료를 재배한 농지에 여름철 콩?가루쌀을 재배한 농가는 총 25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가루쌀은 농식품부에서 2023년 가루쌀 생산단지로 선정된 법인에 한하며, 하계 조사료는 2022년도에 벼를 재배하고 2023년 하계에 신규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필지에 한 해 지급한다.

전략작물직불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행점검(5월, 10월)을 거쳐 오는 12월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급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 배달의 명수 입점 희망 매장 설문조사

군산시는 13일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가 배달의 명수 이용자를 대상으로 공공배달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점 희망 매장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배달의명수' 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 '배달의명수' 앱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꼽혔던 '다양한 업종의 가맹점 확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로부터 입점 희망 매장을 추천받아 가맹점 모집에 집중할 계획이다.

입점 희망 매장 추천은 오는 28일까지 배달의명수 앱 팝업창 설문조사로 이루어지며, 이후에도 앱 상단 배너를 통해 상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조사 결과는 가맹점 확보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배달의 명수 입점 희망 매장 설문조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배달의명수 앱 배너 및 고객센터(1899-8103)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배달의명수가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더욱 사랑받는 배달앱이 되도록 만족도 조사 시 도출된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맹점 유치 및 이벤트 추진 등 다각화된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산=이재춘기자

익산시, 찾아가는 '안심수질 확인제' 무료진행

익산시가 정수에서 가정 수도꼭지까지 철저한 '안심수질 확인제'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 중이다.

철저한 수질관리를 위해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에 대해 매월 국가공인 수질검사소에 일반세균 등 59개 항목과 감시항목인 지오즈민 등 2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수질검사 결과는 익산시 홈페이지 및 상하수도사업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또한 매월 지역내 42개소 수도꼭지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잔류 염소 등 4개 항목에 대해 기준치 미만으로 검사 결과 적합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집 수돗물안심제' 사업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무료로 수질검사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에 이상이 있거나 수질이 궁금한 경우 가정을 직접 방문해 수돗물을 채수한 후 아연 등 6개 항목 또는 총대장균군 등 11개 항목에 대해 검사한 후 결과를 우편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민원인에게 알려주고 있다.

수질검사 신청은 물사랑 홈페이지(https://www.ilovewater.or.kr)나 상수도과(859-4343)로 전화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자봉센터, 신규 자원봉사자 이벤트 진행

군산시는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진) 주관으로 시행되는 신규 자원봉사자 이벤트 '해피 볼(Vol)쓰데이'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피 볼(Vol)쓰데이'는 자원봉사자(volunteer)와 생일(birthday)을 합친 단어로, 신규 자원봉사자를 위한 인센티브 사업이며 신규 자원봉사자 발굴 및 지속적인 활동을 유도,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올해 신설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신규봉사자(2022년 이후 1365나눔포털 가입자)를 대상, 본인의 생일이 포함된 한 달간 봉사시간 4시간 이상을 입력한 선착순 20명에게 롯데시네마 영화티켓 및 스타벅스 커피쿠폰을 증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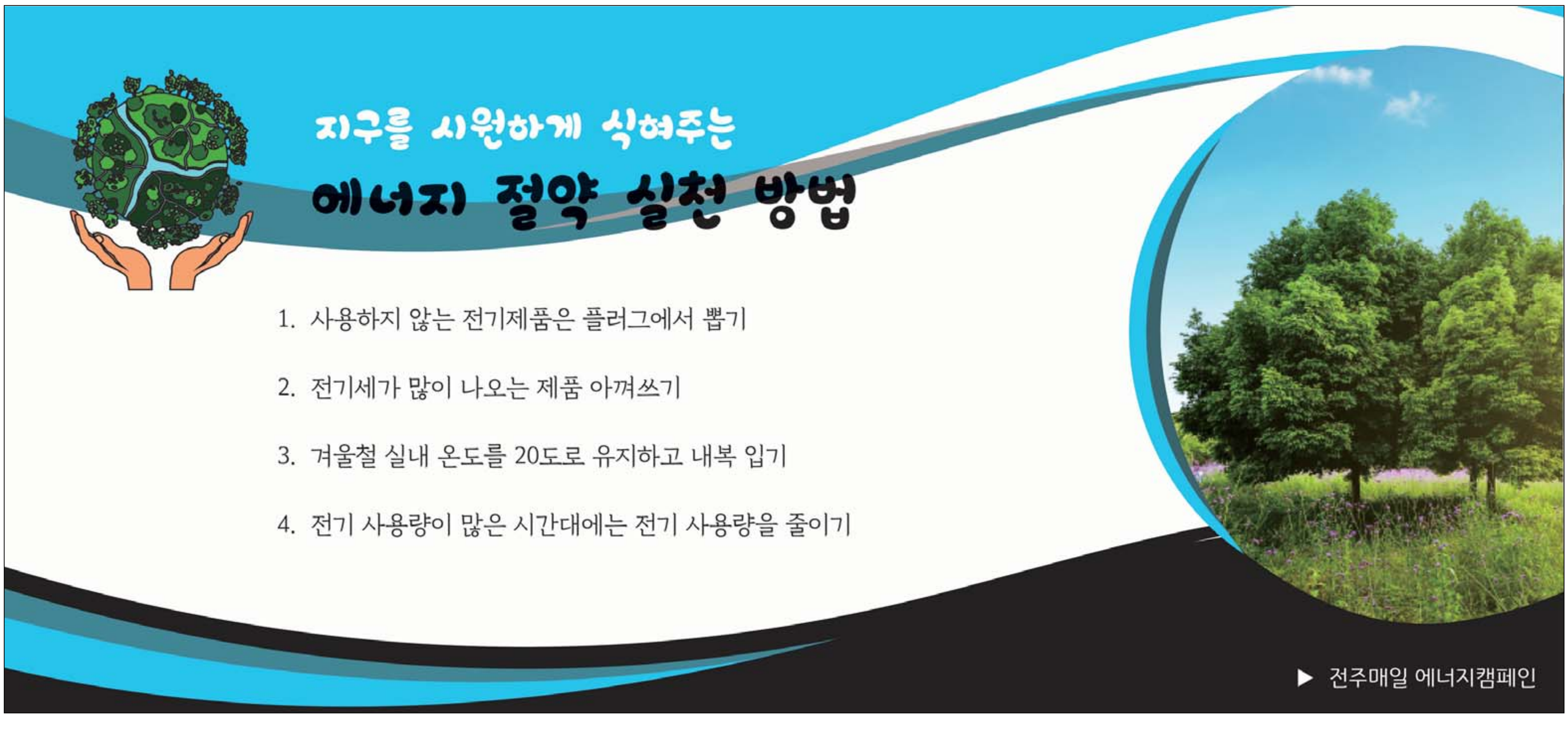
신청 및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군산시 자원봉사센터(☎063-451-1365) 및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doumi1365.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이재춘기자

군산시 보건소, 건강생활 프로그램 대상자 모집

군산시 보건소는 13일부터 24일까지 '근력탄탄! 체력탄탄! 건강생활 실천 신체활동 프로그램'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전문 트레이너가 올바른 헬스 기구 사용법, 식생활 교육 및 유산소·근력운동 등을 교육하며 오는 3월 6일부터 6월 23일까지 오전, 오후 1시간씩(주 3회) 총 16주간 운영된다.

오전반은 BMI 25 이상 이거나 근육량이 표준 이하인 60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며, 오후반은 BMI 25 이상의 비만 위험요인이 있거나 신체활동이 필요한 19세 이상 성인으로 모집인원은 총 50명이다.

프로그램 진행 전 기초검사(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및 인바디검사(신장, 체중, 체질량지수, 골격근량, BMI, 허리둘레)가 진행되며 사전·사후검사를 통해 활동 우수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시상해 건강생활 실천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예정이다. /군산=이재춘 기자